이	름	:																	
							진	짜		부	자								
	북	쪽		마	을	에		소	문	난		부	자		윤		노	인	이
살	고		있	었	어	요	·	어	느		날	,	윤		노	인	은		이
상	한		꿈	을		꾸	었	어	요	·									
	“	윤		노	인	은		들	으	라	·	내	일		정	오	에		이
마	을	에	서		가	장		부	자	인		사	람	이		죽	게		될
것	이	다	·	그	러	니		미	리		준	비	하	여		장	례	식	을
성	대	하	게		치	르	도	록		하	여	라	·”						
수	염	이		허	연		신	령	님	이		나	타	나		이	렇	게	
말	하	는		것	이		아	니	겠	어	요	?	그	런	데		꿈	이	
어	찌		생	생	한	지		잠	에	서		깨	어	난		뒤	에	도	

또	렷	했	어	요	·	‘	이		마	을	에	서		가	장		부	자	라
면		나	를		말	하	는		것	이		아	닌	가	·	아	아	·	깊
은		병	이	라	도		들	었	단		말	인	가	·	하	늘	도		무
심	하	시	지	·’	윤		노	인	은		억	울	한		생	각	이		들
었	어	요	·	그	래	서		서	둘	러		하	인	을		불	렀	지	요
	“	돌	쇠	야	,	돌	쇠	야	~”										
	“	예	,	예		부	르	셨	습	니	까	?”							
	“	마	을	에	서		가	장		훌	륭	한		의	원	을		모	셔
오	도	록		해	·	내		병	을		고	치	는		의	원	에	게	는
내		재	산	의		절	반	을		줄		것	이	야	·	서	둘	러	
모	셔		오	도	록		해	라.	“										
	“	예	?	주	인	님		어	디	가		아	프	십	니	까	?		

	“	딴	소	리		말	고	·	시	간	이		없	어	·	얼	른	!”	
그	러	자	,	소	문	은		순	식	간	에		퍼	져		갔	어	요	·
이	름	난		의	원	들	은		모	조	리		윤		노	인	의		병
을		고	치	겠	다	고		나	섰	지	요	·	‘	음	…	·	도	통	
알		수	가		없	군	·	몸	에		이	상	이		있	기	는		커
녕		젊	은		사	람	들	보	다		더		튼	튼	한		걸	?’	의
원	들	은		하	나	같	이		고	개	를		갸	웃	거	리	며		돌
아	갔	어	요	·	다	음	날	이		되	었	어	요	·	그	런	데	,	이
상	한		일	이	죠	?	정	오	가		지	나	도		윤		노	인	은
멀	쩡	했	던		거	예	요	·	‘	허	,	거	참		이	상	한		일
이	군	·	그	렇	다	면		혹	시		이		마	을	에		나	보	다
더		부	자	가		있	는		것	은		아	닐	까	?”				

	“	얘	,	돌	쇠	야	,	돌	쇠	야	~”								
	“	예	,	주	인		어	른	.”										
	“	혹	시		우	리		마	을	에		오	늘		정	오	에		죽
은		사	람	이		있	느	냐	?”										
	“	예	·	있	습	죠	·	다	리		밑	에		사	는		박		영
감	이		오	늘		돌	아	가	셨	답	니	다	·	흑	흑	.”			
	“	뭐	야	?	박		노	인	이	!”									
	윤		노	인	은		깜	짝		놀	랐	어	요	·	박		노	인	이
라	면		이		마	을	에	서		가	장		가	난	한		사	람	이
었	거	든	요	·	옷	이		없	어	서		한	겨	울	에	도		속	옷
을		입	지		못	할		지	경	이	었	으	니	까	요	·			
	“	안	되	겠	군	·	내	가		가	봐	야	겠	어	.”				

	믿	을		수	가		없	어		윤		노	인	은		직	접		박
노	인	이		살	던		집	으	로		갔	어	요	·	그	런	데		이
게		웬	일	이	에	요	?	박		노	인	의		죽	음	을		슬	퍼
한		나	머	지		사	람	들	이		구	름		떼	처	럼		몰	려
온		것	이	었	어	요	·												
	“	쯧	쯧	쯧	·	가	진		건		모	두		다	른		사	람	들
에	게		나	눠	주	고		조	금	의		욕	심	도		없	는		분
이	셨	는	데	…	·”														
	“	흑	흑	·	그	러	게		말	예	요	·	거	저		나	눠	주	고
어	려	운		일	은		어	떻	게	든		도	와	주	려		했	지	요
·”	“	이		마	을	에	서		가	장		가	난	하	게		살	았	지
만		마	음	만	은		항	상		부	자	셨	지	요	·”				

	그		소	리	를		들	은		윤		노	인	은		한	없	이	
부	끄	러	워	졌	어	요	·												
	‘	난		내	가		지	금	까	지		가	장		부	자	인		줄
만		알	았	어	·	그	런	데		진	짜		부	자	는		따	로	
있	었	네	그	려	·	살	았	을		때	도		마	음	만	은		가	장
부	자	로		살	았	고	,	죽	은		다	음	에	도		이		사	람
들	이		다		재	산	이	구	먼	·	그	러	니		돈	만		많	은
나	보	다	야		얼	마	나		부	자	인	가	·’						
	윤		노	인	은		지	난	날	을		후	회	했	어	요	·	그	리
고		신	령	님	의		말	씀	대	로		박		노	인	의		장	례
식	을		성	대	하	게		치	러		주	었	답	니	다	·			